

2026년 5월 18일

Hana FX Daily Letter

금리 불안과 외인 자금 이탈, 다시 마주한 1,500원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글로벌 강달러와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 반영하며 상승**
daily range 예상: 1,495~1,505원

■ **미-이란 사태의 정체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됨.** 이는 달러 강세를 자극하며 환율 상방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 여기에 더해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국채금리 급등으로 뉴욕증시 기술주가 급락, 이로 인해 국내 증시 내 외국인 자금 이탈세가 한층 가속화될 수 있는 점도 원화 가치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고점 부근에서 유입될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과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은 상단을 제한할 요인으로 판단. 이에 금일 환율은 1,490원대 후반에서 출발 후 상승 시도할 것으로 예상

■ **전일 동향 : 15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9.8원 상승한 1,500.8원에 마감**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와 파운드화 약세에 따른 강달러 반영, 3.2원 오른 1,494.2원에 출발. 장중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자 1,507.7원까지 고점을 높였으나,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되면서 주간 거래는 1,500원선에서 마침. 이후 야간장에서는 뉴욕증시 낙폭 제한된 영향에 1,497.5원으로 하락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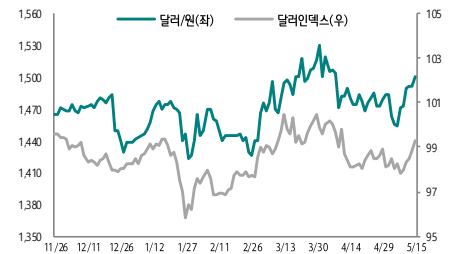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사태의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자 국제유가가 상승, 이에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인덱스는 99선을 돌파
- **(유로-달러)** ECB 통화정책의 매파적 전망보다 미국 물가 상승 리스크로 인한 국채 금리 급등과 강달러가 부각됨에 따라, 유로화는 약세 압력을 받음
- **(달러-엔)** 일본 정부의 재정 확대에 대한 우려와 고유가발 연준의 매파 기초 강화 가능성 등에 미-일 금리차가 지속될 것이라는 경계감이 커지며 엔화 약세 이어짐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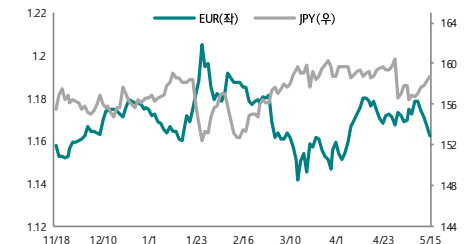
이번주 외환시장은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 향방과 FOMC 의사록 등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 최근 코스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리밸런싱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연속 유출되고 있으며, 이는 환율 상방 압력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여기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사태 관련 뚜렷한 진전이 도출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은 당분간 지지부진한 교착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이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심리는 국내 증시 내 외국인 자금의 추가 이탈 우려를 높이며 환율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음. 주 후반에는 4월 FOMC 의사록으로 시장의 시선이 이동할 전망. 지난 4월 회의가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만큼, 연중 내부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짙어질 것으로 보임. 만약 의사록을 통해 연준의 긴축 선회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한층 커진다면, 미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흐름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다만, 1,500원대에서는 수출업체들이 고점 인식 속에 적극적으로 달러 매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 또한, 외환당국의 미세조정 경계감도 작용하면서 상단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금주 달러/원 환율은 상방 리스크에 무게를 두며, 수급 움직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15:30 종가	02:00 종가	NDF
달러/원	1,494.2	1,500.8	1,497.5	1,496.9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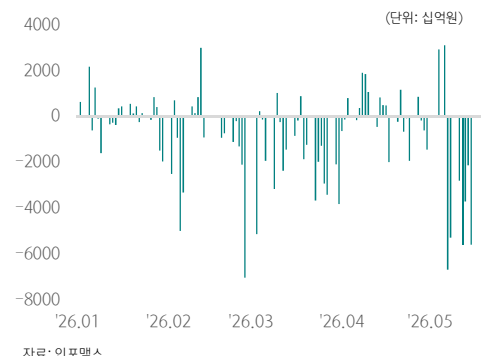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626	158.76	6.8138
전일대비	-0.0044	+0.39	+0.0275
재정환율	1,744.76	945.34	220.25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11:00	중국 4월 산업생산(YoY)	6.0%	5.7%
	중국 4월 소매판매(YoY)	2.0%	1.7%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유출입 추이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